

경산지역 삼국시대 古墳으로 본 定住와 變化에 대한 고찰

鄭 尙 洙*

- I. 서론
- II. 경산지역 삼국시대 고분의 분포 양상
- III. 경산지역 삼국시대 고분으로 본 정주
- IV. 정주와 변화
- V. 결론

국문초록

경산지역 삼국시대 고분 수의 증감을 이용하여, 언제부터 정주를 시작하였으며 언제 고분 수가 증가 혹은 감소하는지 알아보았다. 또 고분 수의 증감을 가지고 매장(사망)인구집단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을 같이 계상하여 정주자의 수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정리하였으며, 변화에 따른 고분의 묘제 변화도 찾아보았다. 경산지역에서 새로운 묘제인 적석목곽묘와 석곽묘는 5세기에, 석실묘는 6세기에 도입되면서 축조되었고, 적석목곽묘와 석실묘가 도입되는 시기에 고분 수의 증가와 이에 따른 정주자의 연평균 인가증가율이 늘어났다.

* (재)다온문화재연구원 원장 / jssmih@hanmail.net

경산지역에 4세기 전반기 전엽에는 임당유적과 안심읍지구에만 고분이 있어서 삼국시대 경산지역의 정주는 이 2군데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4세기 전반기 후엽에 시지유적에 1기의 고분이 조성되지만 임당유적은 前 시기보다 고분 축조가 줄어든다. 임당유적은 4세기 전반기 후엽부터 후반기 후엽까지 줄어들거나 그 상태를 유지하지만 시지유적은 고분 수가 계속해서 늘어난다.

그리고 안심읍지구는 고분 수가 변동이 없다가 사라지며, 가천동지구는 5세기 전반기 전엽의 고분 1기일 때까지 금호강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것 같다. 또 임당유적의 고분 수가 늘어날 때 북사리의 고분이 조성되다가 신상리지구에서 고분 조성의 안정화가 되면서 북사리에 고분이 사라진다. 이 신상리지구의 고분 조성 시기부터 경산지역에 신라의 직접적인 지배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경산지역 전체에 6세기 전반기 전엽까지 고분 수가 증가하지만 6세기 전반기 후엽부터는 줄어들면서 통일기가 되면 명맥을 유지한다. 이렇게 고분 수의 증감을 이용한 연평균 인구 증가율로 볼 때 인구의 자연 증가만으로 늘어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주 등 외부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증감은 신라의 통일전쟁에 따른 전선의 변화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당유적에서 4세기 고분 수의 감소는 삼국사기 신라 초기 기록 수정론의 입장에서 보면 압독의 반란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며, 임당유적의 고분 증가(힘의 확장 등)에 대한 견제 등 여러 이유로 신상리지구가 만들어진 것 같다. 임당유적과 신상리지구의 확장기 때 주변에 각각 중방동과 선화리에 고분이 조성되며, 고분 수의 증가는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새로운 정주지가 만들어졌다. 이 새로운 정주지는 경산지역에 고분이 감소하면서 소멸한다. 삼국시대 이후의 경산지역은 대표적으로 임당유적과 시지유적이며, 이 두 유적을 합쳐 한 개의 권역으로 동반 성장하였다.

◆ 주제어

경산지역, 삼국시대 고분, 定住, 變化, 인구변화 推論

I. 서론

경산지역¹⁾의 고대사와 관련된 자료는 기존에 알려진 문헌과 개발 등으로 인한 고고학 발굴조사 등이 있는데, 근년 들어서 발굴조사의 증가와 그 결과 보고(서)가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발굴조사로 얻은 자료는 문헌에서 찾기 힘든 고대 경산지역에 살았던 사람들과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발굴조사에서는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주거지·건물지 등의 생활공간보다는 죽은 후 묻혔던 무덤(古墳이라고 통칭한다)²⁾이 많이 보고되었다. 이들 고분이 조성된 시기에 이들 고분과 관련된 사람들은 고분이 있는 곳 주변에서 살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거나 이 사람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매장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다면 고분의 출현과 그 數의 増減이 고분이 위치한 주변에 사람들의 定住가 있었다는 것과 동시에 살았던 사람의 수가 늘어나 줄어드는 등의 徵表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특히 삼국시대 신라는 (적석)목곽묘 등의 고분을 조성하면서 신라인이 이곳에 정주하였음을 明證하고 있다.

그러기에 고분의 축조시기를 파악하면 어느 시기에 이 고분과 관련된 사람들이 정주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증감했는지를

1) 慶山 지역이란 이회준, 「경산 지역 고대 정치체의 성립과 변천」, 『영남고고학』 34, 영남고고학회, 2004. 그리고 정상수·방선지, 「경산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묘지로 본 인구변화」, 『영남학』 65,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8., 정상수·방세현, 「경산지역 청동기시대 마을 유적의 위치로 본 가시권분계와 자원가용권 범위 추론」, 『영남학』 82,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2.에서 말하는 경산지역의 개념과 동일하며, 1981년 4월 13일(법률 제3424호) 이전의 경산군 안심면과 고산읍 일원을 포함하는 지금의 경산시가 본고의 공간범위이다.

또 地域·地區·地點은 이회준, 「대구 지역 古代 政治體의 성립과 변천」, 『영남고고학』 26, 영남고고학회, 2000.에서 말한 개념과 동일한데 이를 보면 ‘영남 지방의 대구·경주·경산 지역’, ‘지역’을 구성하는 몇 개의 단위는 ‘지구’, 각 지구 안에 유적을 가리키는 ‘지점’이라고 하였다.

2) 본고에서는 이 시기에 만들어진 무덤을 통칭해서 古墳이라고 하며, 이하 고분이라고 한다.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분 조성이 定住與否에 대한 자료 중 하나이며, 이와 동시에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의 定住者가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물론 고분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정주자(혹은 거주자)가 없었다고 할 수 없지만 본고의 고고학 정보를 가지고 파악하는 것이기에 그 정보인 고분의 有無만을 언급할 수밖에 없다. 또 조성된 고분은 목곽묘, 석곽묘, 석실묘 등이지만 석실묘를 제외하고는 1인 매장 고분³⁾이며, 이는 하나의 고분에 1인이 매장된다는 점이다. 이 결과는 고분이 있는 곳의 인구가 고분에 매장된 사람과 고분을 만들었던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는 고분을 만들었던 사람의 수를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고분이 제공하는 정보로 정주 시기·기간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또 고분의 수를 이용하여 年平均 人口增加率을 파악하면 1년에 어느 정도의 인구가 증감했는지를 어렵잡을 수 있으며, 이는 고분이 있는 주변에 인구 증가율이 어느 정도인지 計數로 볼 수 있다.

여기서 경산지역은 앞에서 언급한 1981년 이전의 당시 경산군지역(<그림 1>·<그림 2>참조)을 말하며, 대상 유적은 2022년 6월까지 조사·보고된 자료(참고문헌의 보고서)⁴⁾만을 가지고 논의한다.<표 1> 참조) 또 본고의 유적과 유구 등의 시기는 출토된 토기를 기준으로 김용성의 편년을 기준⁵⁾으로 하였으며, 김대옥,⁶⁾ 이희준,⁷⁾ 최병현,⁸⁾ 홍보식⁹⁾의 편년 기준을 참조하였다. 특히 본고의 대상 시기는 4세기 전반기 전

3) 주피장자 기준으로 보면 1인이다. 순장자는 論議 대상이 아니다.

4) 누락된 보고서와 새로 나온 보고서가 있으면 추후 다시 추가 정리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5) 김용성, 「土器에 의한 大邱·慶山地域 古代墳墓의 編年」, 『한국고고학보』 35, 한국고고학회, 1996.

金龍星, 「大邱·慶山地域 高塚古墳의 研究」,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金龍星, 『新羅의 高塚과 地域集團 -大邱·慶山の 例地』, 춘추각, 1998.

6) 김대옥, 「임당 고총의 축조와 그 장제」,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7) 李熙濬, 「4~5세기 新羅의 考古學的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이희준, 『신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2007.

8) 崔秉鉉, 『新羅古墳研究』, 一志社, 1995.

9) 洪보식, 『新羅 後期 古墳文化 研究』, 춘추각, 2003.

<표 1> 경산지역 고분군 유적 (유적번호는 <그림 1·2>과 참고문헌의 보고서의 번호와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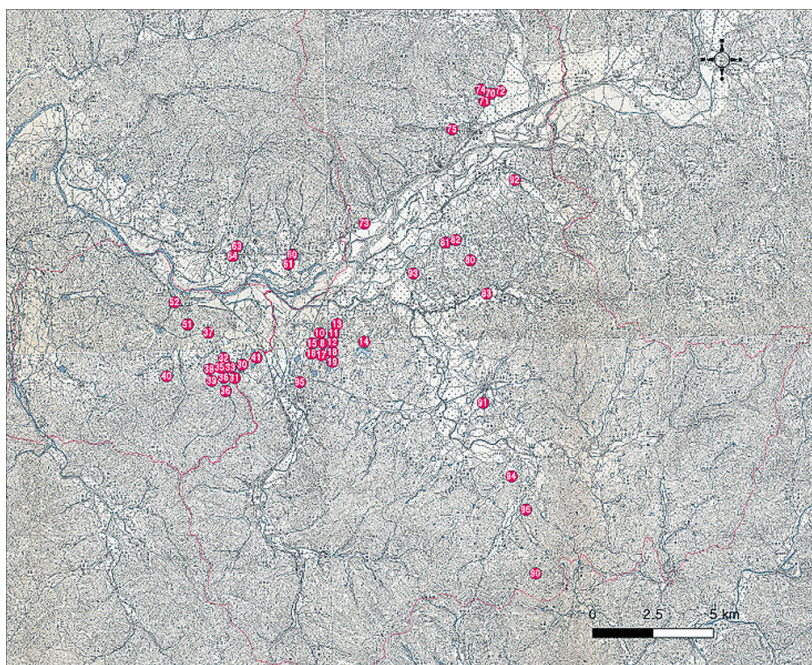
| 권역 | 유적 번호 | 유 적 명 | 권역 | 유적 번호 | 유 적 명 |
|---------------|----------|--------------------|---------------|----------|-------------------------|
| 임당 유적 | 10 | 경산 대동 17-8번지 유적 | 시지 유적 | 30 | 대구 옥수동 유적 상·하 |
| | 11 | 경산 부적리 379번지 유적 | | 31 | 경산 옥산동 677-7번지 유적 |
| | 12 | 경산 임당동 402-20번지 유적 | | 32 | 시지의 문화유적 |
| | 13 | 경산 부적리고분군 BVI호분 | | 33 | 대구 옥수동 고분군 |
| | 14 | 경산 인당지역 고분군 | | 34 | 대구 시지지구 고분군 |
| | 15 | 경산 임당동 유적 | | 35 | 대구 옥수동 388번지 유적 |
| | 16 | 경산 대동 57-1번지 유적 | | 36 | 대구 옥수동·경산 옥산동 유적 |
| | 17 | 경산 대동 57-34번지 유적 | | 37 | 대구 시지동 60-1번지 유적 |
| | 18 | 경산 임당유적 | | 38 | 대구 노변동 고분군 |
| | 19 | 경산 임당 1호분 | | 39 | 대구 옥수동 364-3번지 유적 |
| 가천 동 지구 | 50 | 대구 가천동 고분군 | 하양 읍 지구 | 40 | 대구 삼덕동 유적 |
| | 51 | 대구 가천동 유적 | | 41 | 경산 충산동 유적 |
| | 52 | 대구 가천동 신라묘군 | | 70 | 경산 대학리 51-1번지 유적 |
| 안심 읍 지구 | 60 | 대구 괴전동 901번지 유적 | | 71 | 경산 대학리 74번지·교리 155번지 유적 |
| | 61 | 대구 괴전동 178-2번지 유적 | | 72 | 경산 한사리·대학리 25번지 유적 |
| | 62 | 대구 괴전동 유적 | | 73 | 경산 남하리 471-1번지 유적 |
| | 63 | 대구 동내동 유적 | | 74 | 경산 대학리·교리 유적 |
| | 64 | 대구 각산동 912-6번지 유적 | | 75 | 경산 양지리 유적 |
| 신상 리 지구 | 80 | 경산 평사리 550-3 유적 | 기타 유적 | 90 | 경산 평기리 유적 |
| | 81 | 경산 신상리 유적 | | 91 | 경산 북사리 고분군 |
| | 82 | 경산 신상리 995-3번지 유적 | | 92 | 경산 내리리 유적 |
| | 83 | 경산 대원리·신제리·광석리 유적 | | 93 | 경산 선화리 111번지 유적 |
| | | | | 94 | 경산 인흥리 유적 |
| | | | | 95 | 경산 중방동 682-10번지 유적 |
| | | | | 96 | 경산 갈지리 산16-1번지 외 2필지 유적 |

엽부터 6세기 전반기 후엽까지로 신라 고식도질토기가 나오는 시기부터 신라 통일양식토기 출현하는 시기까지이다.¹⁰⁾ 이렇게 시기를 정한 것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의 기록에 보면 이보다 훨씬 앞선 시기부터 국가가 성립하였지만, 고구려·백제·신라로 삼국, 특히 신라의 문화권이 정립된 것으로 보는 시기가 4세기이기에 삼국시대가 시작된 시기로 보았다. 그리고 삼국사기 등에 668년 고구려가 멸망하였지만, 토기 등 유물로 시기를 볼 때 정확하게 668년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삼국시대 하한을 6세기 전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유구의 종류는 발굴조사 보고자가 발굴조사 보고서에 기록한 것으로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유구를 보는 견해도 보고서 그대로 이용하였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먼저 본고가 유구의 종류를 정하는 것이 논의 주제가 아니며, 다음으로 개인마다 보고된 유구를 보는 의견이 多樣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고의 논의 대상은 유구의 내용과 종류 등이 아니기 때문에 발굴조사와 보고서를 작성한 기관과 보고자의 의견을 그대로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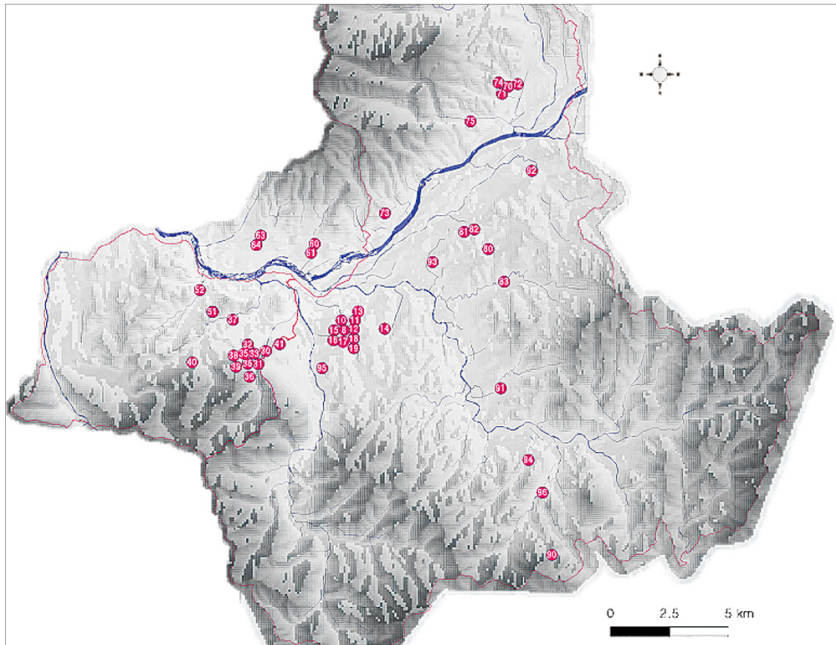
한편 경산지역에서 고분이 조성된 곳은 <그림 1>·<그림 2>와 같으며 이를 구분하면 <표 1>의 권역으로 묶을 수 있다. 그래서 크게 권역을 나누면 임당유적·시지유적·가천동지구·안심읍지구·하양읍지구·신상리지구와 기타 유적(지점)으로 정리되며, 이를 기초로 논의하고자 한다. 여기서 遺蹟이라고 한 것은 그 일대에 대규모 토지 개발로 발굴조

10) 김용성, 앞의 논문(1996), 79~151쪽. 그렇지만 과학적인 분석 결과를 보면 탄소연대 측정값(절대연대)과 토기를 이용한 편년(상대연대)과 차이가 있는데, 탄소연대 측정값이 토기 편년보다 150년에서 200년 앞선 것으로 보고되었다.(역박연대연구그룹, 「경산 임당동고분군 출토 인골의 탄소 14 연대측정-영남대학교 박물관 조사」, 『한일 고대인골의 분석화학·연대학적 연구와 삼국시대의 실연대』, 2016, 53~60쪽; Choy, Kyungchel., Yun, Hee Young., Kim, Seung Hee., Jung, Sangsoo., Fuller, Benjamin T., Kim, Dae Wook., Isotopic investigation of skeletal remains at the Imdang tombs reveals high consumption of game birds and social stratification in ancient Korea, scientific reports, 2021, 11:22551); 최경철·김대옥·정상수, 「조영동고분군 출토 인골과 동물 뼈의 분석을 통한 고대 경산지역의 계층별 식단 복원」, 『한국고고학보』 125, 한국고고학회, 2022, 867~868쪽. 이하 편년은 모두 김용성의 앞의 논문을 따른다.

사의 성과가 크고 그 주변에 토지 개발 이외에 다른 이유로 여러 차례 발굴조사가 진행되었기에 그 일대에 대해 많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地區는 토지 개발 등으로 발굴조사가 있었지만, 유적에 비해 조사된 양과 면적 등이 작으며, 고분의 수 등에서 유적보다 그 수 등이 작아서 지구로 통칭하였다. 기타 유적은 발굴조사 등이 3군데 이하이며 고분 수가 총합이 100기 미만일 경우를 말한다.



〈그림 1〉 일제강점기 경산지역 고분군 분포도(축척 부동; 유구번호는
〈표 1〉·참고문헌과 동일)



〈그림 2〉 경산지역 고분군 분포도(DEM·축척 부동; 유구번호는
〈표 1〉·참고문헌과 동일)

그리고 임당유적과 시지유적의 보고서는 모든 시기의 유구에 대해 구분하지 않고 보고하였기에 고려·조선시대와 근대 묘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다른 유적(지구 등; 이하 동일)은 청동기·원삼국·삼국·고려 등 시기별로 구분하여 보고서가 작성되었기에 해당 시기에 대한 유구만 計上하였다. 그래서 〈표 2〉와 같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었으며, DEM과 일본 강점기에 제작된 지도에 각 유적을 표기하면 〈그림 1〉·〈그림 2〉와 같이 나타난다. 이에 더하여 〈표〉와 〈그림〉에서 유구 번호는 임당유적이 10·20대, 시지유적이 30·40번대, 가천동지구가 50번대, 안심읍지구가 60번대, 하양읍지구가 70번대, 신상리지구가 80번대, 기타 유적이 90번대로 하여 정리하였다. 한 유적에 대해 여러 개의 보고서가 출

판되었으면 같은 한 개의 번호를 부여하였다.(참고문헌 보고서 참조)

마지막으로 본고에 인용되는 발굴조사(보고서)는 2022년 6월까지 보고된 것으로 향후 발굴조사가 더 많이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자료의 축적에 따라 본고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음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이는 무덤을 통해 산정되는 사람들의 정주는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을 추정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며, 신뢰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자료와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유의미¹¹⁾하다. 그렇지만 경산지역에 분포된 유적이 전부 발굴조사가 된 것이 아니라 본고와 같이 언제까지라는 기한을 두고 그때까지 조사된 내용을 정리 발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추후 더 많은 조사가 진행되면 지금 발표하는 또는 이미 발표된 논문이나 글 등의 再現性(reproducibility)¹²⁾ 연구가 진행된다면 앞선 논의들이 더 명확해지거나 아니면 그 의미가 상실할 것이다.

II. 경산지역 삼국시대 고분의 분포 양상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산지역에는 2개의 유적과 4개의 지구 그리고 7개의 지점이 있다. 이들 유적을 정리하면 <표 1>과 같으며, 분포도를 작성하면 <그림 1>·<그림 2>와 같다. 이 <표 1>과 <그림 1>·<그림 2>를 보면 다음과 같이 경산지역의 삼국시대 유적을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삼국시대 경산의 공간 범위를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면 동쪽 경계는 대창천과 청통천 그리고 금호강 합수부, 서쪽 경계는 금호강의 북쪽은 율하천, 남쪽은 고모령 부근과 매호천 부근, 남쪽 경계는

11) 삼국시대 마을유적, 같은 시기의 다른 유적 등이 종합해서 나타나며, 과학적인 분석 등을 더하면 좋은 자료(정보)가 되겠지만 현재는 그러하지 않다.

12) 어떤 연구를 똑같이(방법 등) 다시 반복함으로써 기존에 보고된 결과가 똑같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다.(<https://namu.wiki/w/재현성>) 다만 고고학에서 재현성 연구가 시작할 시점은 현재보다 더 많은 발굴조사 등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결과는 지금보다 더 많은 자료를 대입한 것이다.

현재의 청도군과 경계, 북쪽 경계는 하양의 북쪽 부근까지이다. 추후에 이 범위 밖에서 유적이 발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 발굴조사된 자료와 정보는 이와 같다.

다음으로 금호강을 기준으로 남쪽에 위치한 대형고총고분군인 임당유적(유적번호 10·20번대)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보면 시지유적(유구번호 30·40번대)·가천동지구(유구번호 50번대)·안심읍지구(유구번호 60번대)·하양읍지구(유구번호 70번대)·신상리지구(유구번호 80번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타 지점(유구번호 90번대)이 관찰된다. 이렇게 보면 고분이 집중된 곳은 선상지의 끝부분에 있는 나지막한 구릉 또는 산지와 접한 斜面이며, 주변에 江 또는 川이 흐르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즉 임당유적에는 오목천이, 시지유적에는 옥수천과 매호천이, 가천동지구에는 금호강이, 안심읍지구에는 금호강·울하천 등이, 하양읍지구에는 금호강과 청통천 등이, 신상리지구에는 금호강 등이 흐르고 있으며, 유적이 있는 곳은 선상지의 구릉 또는 구릉의 말단부 등에 해당한다. 또 유적 주변에 지금 경작지가 조성되어 있어서 삼국시대에도 일부는 경작이 가능한 곳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표 2> 경산지역 유적의 시기별 유구 수

| 구 분 | 임당 유적 | 시지 유적 | 가천 지구 | 안심 지구 | 하양 지구 | 신상 지구 | 선화 리 | 갈지 리 | 내리 리 | 평기 리 | 복사 리 | 인흥 리 | 중방 동 | 계 |
|---|----------|----------|----------|----------|----------|----------|---------|---------|---------|---------|---------|---------|---------|------|
| 3C이전 | 148 | 1 | 24 | 18 | 2 | 4 | | | | | | | 1 | 198 |
| 4C전전 | 11 | | | 3 | | | | | | | | | | 14 |
| 4C전후 | 9 | 1 | | 3 | | | | | | | | | | 13 |
| 4C후전 | 3 | 11 | | 3 | | | | | | | | | | 17 |
| 4C후후 | 5 | 42 | | | | | | | | | | | | 47 |
| 5C전전 | 27 | 46 | 1 | | | | | | | | 1 | | | 75 |
| 5C전후 | 36 | 52 | 18 | 4 | | 5 | | | | | 1 | | | 116 |
| 5C후전 | 44 | 124 | 22 | 13 | | 5 | | | | | 1 | | 3 | 212 |
| 5C후후 | 141 | 269 | 49 | 27 | | 25 | 4 | | | | | | 8 | 523 |
| 6C전전 | 261 | 653 | 116 | 35 | 2 | 40 | 3 | 1 | | | | | 5 | 1116 |
| 6C전후 | 157 | 116 | 14 | 16 | | 15 | | 1 | | 1 | | | | 320 |
| 통일기 | 117 | 133 | 49 | 3 | 13 | 12 | | | 8 | | | 2 | | 337 |
| 고~근 | 179 | 21 | | | | | | | | | | | | 200 |
| 모름 | 560 | 446 | 123 | 86 | 9 | 32 | 4 | 1 | 5 | 3 | | | 6 | 1275 |
| 계 | 1698 | 1915 | 416 | 211 | 26 | 138 | 11 | 3 | 13 | 4 | 3 | 2 | 23 | 4463 |
| ※ 4C전전; 4세기 전반기 전엽, 4C전후; 4세기 전반기 후엽, 4C후전; 4세기 후반기 전엽, 4C후후; 4세기 후반기 후엽을 나타내며, 각 세기 동일하다. 통일기; 통일신라시기 해당, 고~근; 고려·조선·근대 해당, 모름; 시기 모름을 의미한다. 모든 <표>에서 동일하다. ※ 임당유적·시지유적은 유구의 구분 없이 전체 유구를 보고하였고, 다른 유적은 유구의 시기·종류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3세기 이전 유구와 고~근 시기의 유구는 자료 입력을 할 때 계상하지 않았다. ※ 지구의 경우 동명(洞名)뒤의 읍·리 등의 표기를 생략하였다. | | | | | | | | | | | | | | |

그 다음으로 경산지역의 고총고분은 임당유적뿐이라는 점이다. 시지유적과 신상리지구 등에서도 봉토의 흔적은 관찰되지만, 보존을 위한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봉토가 肉眼으로 보이는 곳은 오직 임당유적뿐이다. 그래서 지표조사 결과로 보면 경산지역에 주요 고총고분군은 임당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 유적과 지구는 지표조사에서 나지막한 봉분은 보이지만 발굴조사 과정에서 봉토의 정확한 형태와 크기 등이 파악되었다.

<표 3> 경산지역 삼국시대 시기별 유구 종류

| 구 분 | 목곽묘 | 적석목곽묘 | 석곽묘 | 석실묘 | 암광묘 | 옹관묘 | 계 |
|--|-----|-------|---------|-----|-----|-----|------|
| 4C전전 | 11 | | | | | | 11 |
| 4C전후 | 10 | | | | | 1 | 11 |
| 4C후전 | 16 | | | | | | 16 |
| 4C후후 | 40 | | | | 3 | 2 | 45 |
| 5C전전 | 30 | 2 | 16 | | 3 | 1 | 52 |
| 5C전후 | 28 | 5 | 62 | | 1 | 2 | 98 |
| 5C후전 | 25 | 11 | 146(10) | | 1 | 4 | 187 |
| 5C후후 | 104 | 35 | 325 | 1 | 7 | 3 | 475 |
| 6C전전 | 193 | 30 | 771(13) | 18 | 25 | 15 | 1052 |
| 6C전후 | 109 | 7 | 120(6) | 51 | 5 | 1 | 293 |
| 통일기 | 23 | 2 | 143(8) | 108 | 6 | 12 | 294 |
| 계 | 589 | 92 | 1583 | 178 | 51 | 41 | 2534 |
| ※보고서에 보고된 유구 종류로 자료 입력하였다. ※암광묘는 토광묘로 보고된 것을 포함하고 있다. ※암광묘와 목곽묘는 동일한 유구 종류로 보고 논리 전개한다. ※석곽묘는 횡구식·횡혈식 석곽묘를 같이 계상하였으며, ()의 수는 횡구식·횡혈식 석곽묘 개수이다. | | | | | | | |

또 경산지역의 유적별 정주시기를 파악하려면 주거지 등의 생활유적이 조사·보고되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삼국시대 생활유적보다는 고분 유적이 더 많이 발굴조사 되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분의 축조시기로 유적 일대에 생활이 시작된 시기·점유·이주·변화 등을 알아보고 논의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를 각 유적의 시기별 고분 수에 대해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이 <표 2>를 작성하기 위해 자료를 정리할 때 어떤 보고서는 시기와 고분 종류에 관계없이 전체 유구(고분 등)에 대해 유구 번호를 일괄 부여한 경우가 있었고, 또 다른 보고서는 시대별 고분 종류에 따라 부여된 유구 번호가 달리 하였기에 각 유적과 지구별 고분의 總數에 차이가 있고, 각 유적, 각 지구의 고분 수도 동일하게 입력된 것이 아님을 밝힌다. 다만 본고와 관계되는 삼국시대 고분과 원삼국(초기 철기 포함) 시대와 통일기의 고분은 자료 입력에 반영된 상태이다. 이렇

게 입력한 자료의 고분 총수는 약 4400기이지만 본고의 논의시기에 해당되는 고분은 후기할 <표 3>과 같이 2500여기뿐이다.

이런 방법으로 정리한 유구 수 중 삼국시대 해당되는 고분을 종류별로 정리하면 <표 3>과 같이 나타나며, 여기의 유구 종류는 보고서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래서 4세기에서 6세기 전반기 후엽까지 그리고 통일신라시기에 해당되는 유구 수는 총 2534기이다. 이 시기에 유구 종류는 목곽묘, 적석목곽묘, 석곽묘, 석실묘, 암광묘(토광묘), 옹관묘 등이다. 이들 유구의 종류 중에 석곽묘에는 횡혈식 또는 횡구식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에 표기¹³⁾하였으며, 암광묘는 <표 3>에서는 구분하였으나 도면 등으로 볼 때 목곽묘일 가능성이 있어서 논의할 때에는 목곽묘와 같이 논리를 전개하고자 한다.

한편 경산지역의 삼국시대 묘제는 4세기 전반기 전엽부터 통일기까지 목곽묘(암광묘 포함)가 유지되며, 5세기 전반기 전엽에 도입된 적석목곽묘와 석곽묘의 도입 이후 통일기까지 석곽묘가 主 묘제로 이어진다. <표 3>과 같이 매장된 사람의 신분이나 직위 혹은 本郷 등 여러 이유로 인해서 목곽묘와 적석목곽묘가 통일기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묘제의 변화를 수용하는 것은 당시에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주에서 거의 이용하지 않던 적석목곽묘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경산지역에서 이 묘제를 고수하는 집단이나 가문 등이 있었다는 증거이다.

Ⅲ. 경산지역 삼국시대 고분으로 본 정주

경산지역에 사람들이 살았던 것은 청동기시대 이전부터이며, 청동기시대의 인구에 대한 논의¹⁴⁾는 있었지만 원삼국(초기철기 포함, 토기 편년을 기준으로 청동기 이후부터 3세기까지)시대의 인구·정주 등과 관련

13) ()의 수는 석곽묘의 총수에 포함되어 있다. 즉 5세기 후반기 전엽에 총 146기의 석곽묘가 있는데 이 중 10기가 횡혈식 혹은 횡구식이다.

14) 정상수·방선지, 앞의 논문(2018), 정상수·방세현, 앞의 논문(2022).

된 연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보면 경산지역은 청동기부터 사람들이 살아왔었으며, 일부 지구 등을 제외하면 청동기시대 유적이 보고되어 있다.

그리고 원삼국시대의 고분이 보고된 곳은 임당유적이 가장 많으며, 가천동지구, 안심읍지구, 신상리지구, 시지유적 순이다. 이로 볼 때 원삼국시대에는 임당유적이 148기의 고분(원삼국시대를 총괄한 고분수이다. 이하 동일)이 있어 가장 많은 수이며 다음으로 가천동지구 24기, 안심읍지구 18기 순이다. 임당유적이 원삼국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주한 곳이고 가천동지구, 안심읍지구 등이 정주한 인원이 작은 곳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삼국시대 고분의 축조된 시기를 가지고 각 유적(지구 등)별 정주시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4세기 전반기를 보면 4세기 전반기 전엽¹⁵⁾ 시기에 해당되는 고분은 임당유적과 안심읍지구에서 관찰된다. 이 4세기 전반기 전엽 시기에도 임당유적이 안심읍지구보다 고분 수가 많은 것으로 보아 임당유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정주하였다. 그리고 4세기 전반기 후엽이 되면 임당유적, 안심읍지구에서 고분이 계속 만들어지며, 이때 시지유적에서 처음으로 고분이 조성된다. 고분의 수로 볼 때 임당유적, 안심읍지구, 시지유적 순이다.

다음으로 4세기 후반기 전엽이 되면 시지유적에 고분이 11기가 조성되지만 임당유적과 안심읍지구는 각각 3기의 고분이 관찰된다. 이 시기에는 임당유적은 고분 수가 앞 시기에 비해 1/3으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안심읍지구는 고분의 수에 변화가 없다. 그렇지만 시지유적은 앞 시기의 1기에서 11기로 급증한다.

또 4세기 후반기 후엽이 되면 임당유적은 고분 5기가 조성되면서 앞 시기보다 2기가 늘어나는데, 비해 시지유적의 고분은 前 시기에 비해 3.8배 증가한 42기가 축조된다. 이에 반해서 안심읍지구는 고분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고분과 관련된 사람들의 정주가 없는

15) 金龍星, 앞의 논문(1996, 1997), 그리고 앞의 책(1998)의 편년 기준을 따르며 이하 동일하다.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5세기 전반기 전엽에는 시지유적에 고분이 46기로 앞 시기와 거의 변화가 없지만, 임당유적은 약 3배 이상 증가하는 27기의 고분이 만들어진다. 또 계속해서 안심읍지구에 고분이 조성되지 않는 시기이지만 새로이 가천동지구와 북사리에 각각 고분 1기가 축조된다. 특히 북사리 고분은 1기에 불과하지만, 고분의 크기와 부장된 유물 등으로 볼 때 그 위세는 임당유적보다 조금 낮은 위계로 보이며, 시지유적보다도 고분의 규모와 부장품으로 볼 때 위계가 더 높은 것으로 짐작되지만 고분수에서 북사리는 1기뿐이다.

그런데 5세기 전반기 후엽이 되면 고분은 임당유적에 36기, 시지유적에 52기가 만들어져서 전 시기에 비해 고분이 각각 9기, 6기가 늘어나는데, 가천동지구는 18기로 앞 시기와 비교하면 17기로 급격히 증가한다. 이에 함께 신상리지구에 5기의 고분이 새로이 조성되며, 또한 안심읍지구에도 중단되었던 고분이 4기가 (약 50년만에) 축조되지만 북사리는 고분 1기가 계속 만들어진다. 이 시기에 금호강 兩岸에 강을 眺望할 수 있는 곳인 가천동지구와 안심읍지구에 고분이 증가하거나 다시 조성되며, 신상리지구에 고분이 처음 조성된다.

이에 더하여 5세기 후반기 전엽에는 앞 시기보다 고분수가 임당유적은 44기로 8기가, 시지유적은 124기로 72기가, 가천동지구는 22기로 4기가, 안심읍지구는 13기로 9기가 증가하였고, 신상리지구는 5기, 북사리는 1기로 변화가 없다. 그렇지만 중방동에 고분 3기가 새로이 만들어지며 경산지역에서 고분이 조성되는 곳이 1군데 더 늘어난다.

그렇지만 5세기 후반기 후엽이 되면 고분의 수가 임당유적은 141기로 3배 이상, 시지유적은 269기·가천동지구는 49기·안심읍지구는 27기로 각각 2배 이상, 신상리지구는 25기로 5배 이상, 중방동은 8기로 1.6배 증가하며, 새로이 선화리에 고분 4기가 축조된다. 이에 반해 이 시기가 되면 북사동은 더 이상 고분이 조성되지 않는 곳이 된다.

또한 6세기 전반기 전엽에는 고분이 임당유적에 261기·시지유적에 653기·가천동지구 116기가 조성되어 각각 2배 이상 증가하며, 안심

읍지구에 35기 · 신상리지구에 40기가 만들어져 각각 1.6배, 1.3배 늘어난다. 그렇지만 선화리 3기와 중방동 5기로 고분 수가 줄어들며, 하양읍지구와 갈지리에 새로이 고분이 각각 2기와 1기가 만들어진다. 이때부터 하양읍지구에 삼국시대의 고분이 조성되기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6세기 전반기 후엽이 되면 고분 수가 임당유적은 157기로, 시지유적은 116기로, 가천동지구는 14기로, 안심읍지구는 15기로, 신상리지구는 15기로 줄어든다. 이는 각각 앞 시기와 비교하면 60% · 17% · 12% · 45% · 37% 수준으로 고분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며, 하양지구와 중방동 그리고 선화리는 고분이 조성되지 않는다. 이 시기 최대치인 임당유적의 60% 수준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 시기에 비해 50% 이상 고분의 축조가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갈지리와 평기리에 각각 1기의 고분이 만들어지며, 6세기 전반기 전엽과 비교해 볼 때 경산지역의 고분이 1116기에서 320기로 1/3 정도로 고분의 축조가 급격하게 줄어든다.

그리고 6세기 후반기인 삼국통일시기가 되면 임당유적에 117기, 시지유적에 133기, 가천동지구에 49기, 안심읍지구에 3기, 신상리지구에 12기, 하양읍지구에 13기의 고분이 각각 만들어지며, 새로이 내리리에 8기, 인흥리에 2기의 고분이 조성된다.

이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임당유적과 안심읍지구에 3세기 이전 원삼국 시대부터 고분이 조성되기 시작하여 임당유적은 4세기 전반기 전엽부터 통일기까지 계속되지만, 안심읍지구는 4세기 후반기 후엽에서 5세기 전반기 전엽까지 약 50년간 고분이 조성되지 않다가 5세기 전반기 후엽에 다시 고분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시지유적은 4세기 전반기 후엽부터 고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4세기 후반기부터 임당유적보다 더 많은 수의 고분이 조성되지만 6세기 전반기 후엽부터는 임당유적보다 고분 수가 줄어든다. 또 가천동지구는 5세기 전반기 전엽부터, 신상리지구는 5세기 전반기 후엽부터 고분이 축조되며, 북사리는 5세기 전반기 전엽 · 5세기 전반기 후엽 · 5세기 후반기 전엽까지 고분이 각각 1기씩 만들어졌다. 중방동은 5세기 후반기 전엽부터 6세기 전반기 전엽까지 임당유적과 시지유적에 고분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에 고분이 조성되었다.

다음으로 경산지역에 조성된 고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4세기 전 시기에는 목곽묘(암광묘 포함)와 몇 기의 옹관묘만 조성되었지만, 5세기 전반기 전엽이 되면 석곽묘와 적석목곽묘라는 새로운 묘제로 도입되었다. 이후 5세기 전반기 후엽부터 경산지역 고분의 主墓制는 석곽묘가 되는데, 석곽묘는 목곽묘(암광묘 포함)보다 약 2.5배 더 많고 경산지역의 고분 묘제에서 약 62%를 차지하게 된다. 이로 보아 목곽묘, 특히 적석목곽묘는 특정 집단 혹은 가계 또는 인물 등을 위한 묘제임을 暗示하며, 석곽묘와 목곽묘의 축조에 투입되는 비용(인력·기간·재료 구입 등) 등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고분의 종류가 이번 논의 주 대상은 아니며 이는 삼국시대 경산지역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인용하였다.

지금까지 경산지역의 시기별 고분 수와 고분의 종류에 대해 파악하였으며 다음 장에서 각 유적별 정주 시기 등과 관련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IV. 정주와 변화

경산지역의 삼국시대 고분들은 <그림 1>,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호강과 그 지류를 따라 분포되어 있으며, 금호강 南便의 2군데(임당유적과 시지유적)에 많은 고분들이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분포된 상황은 청동기시대 유적의 분포 상황¹⁶⁾과 거의 비슷하지만, 청동기시대 유적이 관찰되지 않지만 삼국시대 고분 유적이 있는 곳이 임당유적이다. 즉 경산지역에서 청동기시대에 마을이 형성된 곳과 그 주변에 삼국시대에 사람들이 살았으며, 이는 청동기시대나 삼국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환경¹⁷⁾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청

16) 정상수·방선지, 앞의 논문(2018), 15쪽의 <그림 1>과 정상수·방세현, 앞의 논문(2022), 117~118쪽의 <그림 1>, <그림 2> 참조.

17) 환경에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등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 생활환경이라고 하였으며 이하 동일하다.

동기시대 마을 등이 형성된 곳 주변에 삼국시대 고분들이 조성된 시기는 언제인가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삼국시대 고분의 조성 以前의 원삼국시대를 보면 금호강과 그 지류 그리고 이들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인 임당유적·가천동지구·안심읍지구에 10여기 이상의 고분이 조성되었다. 그렇지만 삼국시대 고분 축조된 것으로 본 정주에 대해서 논하면 4세기 전반기 전엽에 임당유적과 안심읍지구에서 시작되는데, 이 두 유적은 경산지역에서 원삼국시대 고분이 1·2번째로 많은 곳이다. 특히 임당유적은 4세기 전반기 전엽부터 6세기 전반기 후엽까지 끊임없이 고분이 조성된 곳으로 삼국사기에 압독국의 故地(故址)¹⁸⁾에 해당한다. 그리고 시지유적은 4세기 전반기 후엽에 처음으로 고분 1기가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임당유적과 그 궤를 같이한다. 4세기 후반기 전엽까지 경산지역에는 임당유적, 시지유적 그리고 안심읍지구 등 3곳에만 고분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 이곳을 중심으로 정주하였다. 그렇지만 4세기 후반기 후엽에서 5세기 전반기 전엽까지 약 50년간 안심읍지구는 고분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정주 흔적이 없는 시기가 된다. 이는 4세기 후반기 후엽에는 임당유적과 시지유적에만 고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에서만 정주가 관찰되는데, 특히 4세기 후반기 전엽부터 시지유적에 임당유적보다 더 많은 고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정주자가 임당유적보다 많았다는 증거이다. 하지만 6세기 전반기 후엽이 되면서 임당유적보다 고분 수가 감소하면서 정주자 수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5세기 전반기 전엽이 되면 가천동지구와 북사리에 새롭게 고분이 만들어지는데 경산지역에 임당유적과 시지유적을 포함하여 4군데에 정주하지만, 북사리는 5세기 전반기 전엽·전반기 후엽 그리고 후반기 전엽까지 각각 1기의 고분만 축조되었다가 이후에는 고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5세기 전반기 후엽에는 임당유적·시지유적·가천동지구·

18) 이병도 역주, 『삼국사기』 상·하, 을유문화사, 2002; 파사니사금 23년·27년, 일성니사금 13년, 내해니사금 23년, 선덕여왕 11년, 태종무열왕 13년, 잡지3, 지리 1 등에 기록이 있다.

북사리에 더하여 안심읍지구와 신상리지구에 고분이 만들어지는데, 북사리를 제외하고는 금호강과 그 지류의 兩岸에 해당된다. 이 시기부터 임당유적·시지유적·가천동지구·안심읍지구·신상리지구 등 5군데는 고분 수의 증감이 비슷하게 진행되면서 경산지역의 고분 조성과 같이한다.

그리고 5세기 후반기 전엽이 되면 임당유적·시지유적·가천동지구·안심읍지구·신상리지구에 더하여 중방동에 고분이 등장하며, 신상리지구를 제외한 임당·시지 유적과 가천동·안심읍 지구에서는 최소 1.2배에서 최대 3배 이상의 고분이 축조된다. 5세기 후반기 후엽에는 5세기 후반기 전엽의 임당유적·시지유적·가천동지구·안심읍지구·신상리지구·중방동 외에 선화리에 고분이 만들어지며, 임당·시지 유적과 가천동·안심읍·신상리 지구 그리고 중방동에는 최소 2배 이상의 고분이 만들어진다. 그렇지만 북사리에서는 고분이 더 이상 조성되지 않으면서 고분으로 본 정주자가 없는 곳에 된다.

한편 6세기 전반기 전엽이 되면 5세기 후반기 후엽의 임당·시지 유적과 가천동·안심읍·신상리 지구 그리고 중방동·선화리 외에 하양읍지구와 갈지리에 고분이 관찰된다. 이 시기에 경산지역에 삼국시대 고분이 조성된 곳은 9군데로 늘어나면서 경산지역의 고분의 수는 급증한다. 이러다가 6세기 전반기 후엽에는 새로이 평기리에 고분이 생기면서 하양읍지구·선화리·중방동 등에는 더 이상 고분이 조성되지 않는다. 또 임당유적·시지유적·가천동지구·안심읍지구·신상리지구 등에는 고분의 수가 1/2이상으로 급격하게 감소한다. 그리하여 6세기 후반기, 즉 삼국 통일기가 되면 임당유적·시지유적·가천동지구·신상리지구는 6세기 전반기 후엽과 비교할 때 고분의 수에 그리 큰 변화가 없지만 안심읍지구는 고분 수가 많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하양읍지구는 다시 고분이 들어서고, 내리리·인흥동 등에 새로 고분이 축조되면서 정주가 시작된다.

주지하듯이 4세기 전반기 전엽·전반기 후엽과 후반기 전엽까지는 경산지역 내에서는 임당유적·시지유적·안심읍지구에서만 사람들이 정주하였으며, 이는 앞선 시기의 고분 수가 많은 곳에 해당한다. 앞 시기와

같이 삼국시대 신라 고분이 축조되던 때에도 이곳은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렇지만 임당유적은 이 기간 고분 수가 줄어들었는데 이는 임당유적의 정주자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병리적인 현상¹⁹⁾이라면 시지유적과 안심읍지구 등에서도 고분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에 정주자들에게 생활환경이 변화하였던 것 같다. 혹 『삼국사기』 逸聖尼師今 13년조에 나오는 압독의 반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²⁰⁾ 그래서 4세기 전반기 전엽에 축조된 고분 수가 4세기 전반기 후엽부터 4세기가 끝날 때까지 줄어들면서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고분 수가 줄어드는 것은 생활환경의 변화가 질병 등의 병리적인 이유보다는 군사·정치적인 것으로 보아야 맞는다. 이 4세기에는 금호강과 그 지류의 양안 구릉지에 고분이 조성되면서 정주하지만, 안심읍지구에서 4세기 후반기 후엽에서 5세기 전반기 전엽에 해당되는 시기의 고분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혹시 임당유적(압독)의 반란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증거가 없으며, 다른 이유로 고분이 만들어지지 않았기에 고분과 관련된 사람들이 정주하지 않은 빈 공간[空地]²¹⁾이 된다.

한편 시지유적에 고분이 들어서는 시기는 임당유적보다 늦은 4세기 전반기 후엽으로 1기가 조성된다. 그렇지만 임당유적의 고분 수가 줄어드는데, 비해 시지유적의 고분 수는 4세기 후반기 전엽이 되면 급격히

19) 유행하는 질병이 있었다면 시지유적과 안심읍지구 등에서 같이 유행하여야 하지 임당유적만 유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병리적인 문제가 아닌 것은 시지유적의 고분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20) 이병도 역주, 앞의 책(2002), 36쪽; 일성왕의 기록을 3세기 후반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강중훈, 『신라 상고사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28~59쪽)과 고고학적 자료로 볼 때 4세기 전기 이전으로 보는 견해(이희준, 앞의 논문(2004), 30~31쪽)가 있어서 이를 적용하면 그렇다.

21) 고분이 없다고 사람들이 생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고고학은 증거 자료를 가지고 연구·추론 등을 하는 학문이지만 ‘증거의 부재가 부재의 증거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즉 고고학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시기에 해당되는 증거(본고의 고분)가 없는 것이지 그 시기에 사람들이 살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본고는 고분의 증거만 따라가면서 설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논의한다.

늘어나기 시작한다. 고분의 증가로 볼 때 시지유적의 정주자가 급격하게 늘어난다. 4세기 후반부 전엽부터 임당유적보다 고분의 수가 많아지며, 6세기 전반기 전엽까지 임당유적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된 데에는 먼저 임당유적에 신분이나 지위 등 여러 이유에서 정주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신분과 상관없이 정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주 공간이 부족해서 아니면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가 아닐까 한다.

그리고 가천동지구는 원삼국시대 이전에는 고분이 안심읍지구보다 많았는데 삼국시대 고분이 축조되는 시기부터 4세기 약 100년간은 고분이 관찰되지 않는다. 가천읍지구의 지리적인 중요성 없었거나 있더라도 다른 이유로 인해 고분이 조성되지 않는 공지가 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심읍지구의 빈 공간 시기와 가천동지구 그리고 신상리지구의 정주시점은 안심읍지구와 신상리지구는 5세기 전반기 후엽, 가천동지구는 5세기 전반기 전엽에 시작된다. 안심읍지구가 공지가 된 후 대략 50년 정도 금호강의 직접적인 관리가 안 된 듯한데, 이렇게 보는 이유는 임당유적과 시지유적에서 금호강까지 거리가 가천동지구나 안심읍지구보다 멀기 때문이다. 또 地形으로 금호강과 그 지류가 관찰되지만 직접 관리하기에는 이들 유적이 있는 곳으로부터 지류에서 배를 보내야하기 때문에 거리가 길며, 안심읍지구나 가천동지구에서는 바로 금호강에 접해 있어서 접근하기가 쉬워 직접 관리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금호강과 접한 곳에 정주(고분 조성)가 안 된 것은 혹 금호강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서 안심읍지구에 空地化가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짐작한다. 이런 이유로는 倭의 신라영토 침입으로 내물니사금 때 고구려에 원병²²⁾을 청한 시기와 비슷한 것으로 볼 때 당시 왜의 침입으로 인해 금호강에 직접적인 통제가 어려웠다가 5세기 전반기 전엽에 어느 정도 통제가 되다가 5세기 전반기 후엽이 되면서 완전히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22) 다할편집실 편, 『한국사연표』, 2002, 다할미디어, 96쪽.

이렇게 보면 임당유적의 5세기 전반기 전엽에 27기의 고분이 조성되면서 앞 시기보다 5배 이상 고분이 축조되는 시기에 북사리에 임당유적보다 조금은 낮지만 위세품이 시지보다는 높은 것으로 보이는 고분 1기가 조성되는 점이다. 이는 임당유적에 대한 교류·협력과 견제의 세력으로 보이며, 신상리지구²³⁾에 정주가 시작될 때부터 경산지역에 직접적인 신라화(신라의 직접 지배)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서 5세기 전반기 후엽에 가천동지구가 금호강을 완전히 통제하면서 신상리유적은 5세기 후반기 전엽까지 북사리와 같이 임당유적을 교류·협력·견제하다가 신상리지구가 5세기 후반기 후엽부터 임당유적과 시지유적의 고분 증가와 함께 가천동지구·안심읍지구·신상리지구에도 고분이 늘어난다. 이렇게 고분이 급증하는 때에 북사리는 고분 축조가 되지 않는데, 북사리는 견제세력으로서 기능을 喪失하였을 것이다.

또 시지유적·가천동지구·안심읍지구 등의 고분이 2배 이상 늘어날 때 중방동에 고분이 조성되는데, 이는 임당유적과 가까우며 남천을 경계로 시지유적과 접해 있는 공간에 정주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임당유적·시지유적·가천동지구·안심읍지구 등의 고분 수가 감소할 때 중방동도 더 이상 고분이 조성되지 않는다. 중방동의 고분 조성으로 볼 때 임당유적에 정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정주지이면서 6세기 전반기 후엽의 고분 수가 급감할 때 정주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임당유적·시지유적·가천동지구·안심읍지구·하양읍지구·신상리지구 등에 고분 수의 급감 또는 고분 조성이 멈출 때와 같은 시기로 경산지역 정주자들의 대이동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상리지구의 고분이 5배 이상 증가할 때 선화리에 고분이 축조되는 것도 중방동과 같이 신상리지구의 정주가 증가하면서 새 정주지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신상리지구에 고분이 급감하면 선화리에 더 이상 고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는 중방동도 그 궤를 같이한다.

그러면 5세기 전반기 후엽부터 6세기 전반기 전엽까지 거의 100여년

23) 영남대학교 박물관, 『慶山 新上里 遺蹟Ⅴ』, 2006, 9쪽.

國立文化財研究所, 『韓國考古學專門事典 古墳篇』, 2009, 776~777쪽.

동안 고분 조성이 급증하는데, 가장 급증하는 곳은 시지유적이다. 이렇게 급증하는 현상을 자연스러운 정주자들의 출산에 의한 증가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 경산지역으로 移住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를 들어 시지유적을 보면 고분이 처음 조성되는 4세기 전반기 후엽에 1기였는데, 4세기 후반기 전엽에 11기(11배), 4세기 후반기 후엽에 42기(3.81배), 5세기 전반기 전엽에 46기(1.1배), 5세기 전반기 후엽에 52기(1.13배), 5세기 후반기 전엽에 124기(2.38배), 5세기 후반기 후엽에 269기(2.17배), 6세기 전반기 전엽에 653기(2.43배)로 늘어나다가, 6세기 전반기 후엽에 116기(0.18배)로 급격하게 감소한다.²⁴⁾

이러한 현상은 임당유적의 경우도 시지유적의 증감률과 비슷하며, 가천읍지구·안심읍지구·신상리지구 등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고분 수의 증감을 가지고 정주자 수의 변화를 感知하기는 어려운 데, 고분 수를 가지고 매장(사망)인구집단²⁵⁾을 이용하여 연평균 인구증가율²⁶⁾로 각 유적과 지구 등에 각 시기별로 1년에 몇 명의 사람이 증감

24) 계산 방법은 뒤 시기의 고분 수를 앞 시기의 고분 수로 나누어 나온 값을 소수점 아래 3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이다. 예를 들면 5세기 후반기 후엽의 2.17배 늘어난 것을 계산식에 대비하면, 5세기 후반기 후엽(269기) / 5세기 후반기 전엽(124기)하면 2.16835...이다. 결과 값인 2.168에서 반올림하여 2.17배가 된다.

25) 매장(또는 사망)인구집단은 한 유적 또는 공동묘지에 매장된 채로 발견된 인간유체의 집합을 말한다. 고고학자들이 인구 추산치를 내기는 하지만 다들 추산치가 어렵셈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이희준 옮김, 『고고학의 방법과 실제』, 사회평론, 2013, 103~106쪽.) 고분마다 인골이 출토되어 정확한 人數가 나오면 가장 정확하게 인구의 증감율을 알 수 있지만 보고서에 인골이 출토된 고분보다 인골이 없는 고분이 더 많아서 고분 수로 어렵셈하는 것이다. 추후 더 좋은 방법을 찾게 되면 새로이 시도해 보겠다.

26) 여기서 인구수는 앞의 註에서 언급한 고분 수이며, 이 어렵셈에서 나온 값은 1년에 1000명당 인구 증감율이다. 연평균 인구증가율 공식은 $k = \ln(N/N_0)/t$ 인데, k 는 연평균 인구증가율, N 는 비교대상 시기의 인구수, N_0 는 비교 기준 시기의 인구수, t 는 N 과 N_0 사이의 시간, \ln 는 계산방식과 규칙의 기호이다. 강봉원, 「인구압력과 전쟁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신라를 중심으로-」, 『신라문화』 21,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3, 3~11쪽, 「인구압력과 전쟁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신라를 중심으로-」, 『한국고고학 일 방향』, 학연문화사, 2008, 213~225쪽.; 정상수·방선지,

하는지 어렵셈해 볼 수 있다.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고분 수를 이용하여 1년에 몇 명이 증감하였는지 추산치를 어렵셈하는 것으로 오늘날처럼 어느 지역(군이나 시 등)에 1년에 몇 명이 출생(사망)하고 이주하였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삼국시대의 인구 기록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당시 인구 증감의 기초 자료가 된다. 이렇게 해서 얻은 어렵셈의 결과는 각각 유적·지구 등에 정주자의 연평균 인구증감률을 대략이나마 알 수 있으며, 정주에 증감이 생기는 이유 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표 4> 경산지역 유적별 연평균 인구증가율

| 구 분 | 임당유적 | 시지유적 | 가천동지구 | 안심읍지구 | 신상리지구 | 중방동 | 경산지역 전체 |
|--|-------|-------|-------|-------|-------|-------|------------|
| 4C전전 | | | | | | | |
| 4C전후 | -0.80 | | | | | | -0.3 |
| 4C후전 | -4.39 | 9.59 | | | | | 1.07 |
| 4C후후 | 2.04 | 5.36 | | | | | 4.07 |
| 5C전전 | 6.75 | 0.36 | | | | | 1.87 |
| 5C전후 | 1.15 | 0.49 | 11.56 | | | | 1.74 |
| 5C후전 | 0.80 | 3.48 | 0.80 | 4.71 | 0 | | 2.41 |
| 5C후후 | 4.66 | 1.13 | 3.20 | 2.92 | 6.44 | 3.92 | 3.61 |
| 6C전전 | 2.46 | 3.55 | 3.45 | 1.04 | 1.88 | -1.88 | 3.03 |
| 6C전후 | -2.03 | -6.91 | -8.46 | -3.13 | -3.92 | | -5 |
| 통일기 | -1.18 | 0.54 | 5.01 | -6.70 | -0.89 | | 0.21 |
| *계산식은 임당유적의 경우 4세기 전후의 연평균 인구증가율 = $\ln(4세기 전후 고분 수 11기 / 4세기 전전 고분 수 9기) / 전전과 전후의 햇수(25년) \times 100$ 에서 나온 값의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 | | | | | | |
| *계산은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하여 수식에 대비한 결과 값이다. | | | | | | | |
| *값에서 1.15는 증가를 -0.80은 감소를 나타낸다. 즉 25년 동안 1년에 평균 1.15명 증가 또는 0.80명 감소하였다는 의미이다. | | | | | | | |

여기서 시기 구분이 1세기를 25년씩 4분기²⁷⁾로 나누었기에 25년 동

앞의 논문(2018), 13쪽.; Hassan, Fekri. A., *Demographic Archaeology*, *Advances in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v.1., 1978, 55~58쪽.; Chamberlain, Andrew., *Demography in Archaeology*, *Cambridge Manuals in Archae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19~23쪽.

안 1년에 1000명당 몇 명이 증감하는지 알 수 있다. 물론 임당유적만이 봉토가 있는 고총 고분과 순장자가 있으며, 다른 유적과 각각의 지구·지점들은 상황이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차이가 있고 봉토를 축조하는데 동원된 인력 등을 보면 임당유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인력을 데려왔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삼국시대 인구에 관한 기록 등의 문헌을 통한 자료가 있지 않고, 당시의 자료 중 남은 것이라고는 고분이 제일 많기에 이를 이용하여 가름하고자 한다. 그래서 순장자의 여부, 몇 명이 매장된 것인지 관계없이 고분 1기는 1인으로 하여 연평균 인구증가율 공식으로 계산한 어림셈이다.

위와 같이하여 임당유적·시지유적·가천동지구·안심읍지구·신상리지구·중방동·경산지역 전체로 계산하면 <표 4>과 같다.

결과적으로 <표 2>와 <표 4>를 비교하면 먼저 고분 수로 증감을 말하면 2배 등으로 말하지만 시기별 기간의 간격이 25년이기에 이를 1년 연평균 인구증가율로 보면 고분 수의 증가와 다른 수치가 나온다. 이를 보면 임당유적의 5세기 전반기 전엽에 고분 조성은 3배 이상이지만 고분 수를 가지고 연평균 인구증가율로 보면 1년에 6.75명이 25년간 계속 해서 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반면 6세기 전반기 전엽의 고분 수는 임당유적은 1.85배, 시지유적이 2.43배 증가하였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년에 2.46명과 3.55명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런데 임당유적과 시지유적의 고분 수의 차이는 2.5배 이상으로 시지유적이 많다. 연평균 인구증가율로 볼 때 경산지역은 4세기 후반기 후엽, 5세기 후반기 후엽, 6세기 전반기 전엽에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높는데, 4세기 후반기 후엽은 신라가 경산지역을 완전히 관할한 시점²⁸⁾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5세기 후반기 후엽과 6세기 전반기 전엽 시기는 신라의 삼국통일을 위한 전쟁을 하는 시기로 경산지역이 삼국 통일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던 시기이고, 소지·지증마립간과 법흥왕 시기에 해당되는 때이다. 그 후 대야(지금의 합천지역)로 압독주를 옮겼다는 기록으로 보아 6세기 전

27) 金龍星, 앞의 논문(1996, 1997), 앞의 책(1998).

28) 이희준, 앞의 논문(2004), 30~31쪽.; 강종훈, 앞의 책(2001), 28~59쪽.

반기 후엽 무렵부터 戰線이 서쪽과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전진기지도 같이 움직였으며 이로 인해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삼국시대의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신라촌락문서」의 연구 결과는 20~25세(30세 이하),²⁹⁾ 인골의 인류학적 결과를 이용한 임당유적의 평균수명은 30세 내외, 김해 예안리고분군의 경우는 26세 내외이며,³⁰⁾ 다른 방법으로 연구한 사망평균연령 결과는 25세~(34세)이다.³¹⁾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대략 25년(개인차는 있지만 평균)이 지나야 고분이 조성되는데, 매년 인구증가율이 1명이상일 경우 그 곳에서 태어나서 죽었다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유아 사망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웅관묘가 임당유적보다 많은 김해 예안리고분군의 평균수명이 짧은 것을 보면 유아 사망이 많았음을 암시한다. 또 어느 정도의 신분이 아니면 유아의 죽음이 고분 조성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을 보면 출산에 의해 인구가 매년 1명이상 계속해서 늘었다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또 출산에 의한 증가일 경우 최소 1000명당 1년에 2명이상이 출생하고 고분이 조성될 때까지 성장·사망해야 유지되지만 이 보다 적을 경우 감소한다. 그래서 이주가 없이 출산에 의한 자연 증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렇게 이주를 할 때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던 문화·생활 습관 등등이 동반하여 오기에 변화가 동반된다.

그러면 묘제로 볼 때 <표 3>과 같이 4세기 전반기 전엽부터 목곽묘가 계속 조성되며, 5세기 전반기 전엽에 적석목곽묘와 석곽묘가 새로 들어와서 만들어진다. 이 적석목곽묘와 석곽묘가 조성되기 약 25년 전에 시지유적에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급증하며, 그 다음 시기인 4세기 후반기 후엽에 임당유적과 시지유적 모두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증가한다. 이들 적석목곽묘와 석곽묘는 모두 1인(주피장자로 볼 때 순장자 제외)의

29) 兼若逸之, 「新羅 《均田成冊》에서 推定되는 平均壽命」, 『韓國史研究』 30, 한국사연구회, 1980, 315~347쪽.

30) 정상수·최봉인, 「경산 임당지역과 김해 예안리 고분 출토 인골의 평균 수명」, 『야와고고학』 22, 한국매장문화재협회, 2015, 27~52쪽.

31) 김두철, 「金海 禮安里遺蹟의 再檢討-性·年齡을 통한 社會構造 復原 試案-」, 『韓國古代史와 考古學』, 鶴山金廷鶴博士 頌壽 紀念論叢, 2000, 309~339쪽.

묘인데, 비해 5세기 후반기 후엽에 도입된 석실묘는 가족과 같은 여러 명이 매장되는 묘제이다. 이 석실묘가 도입되기 前인 5세기 후반기 후엽부터 6세기 전반기 전엽까지 경산지역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중방동을 제외하고 최소 1.04명에서 최대 6.44명이다. 즉 5세기 후반기 후엽부터 경산지역에 1기의 석실묘가 만들어진 후 6세기 전반기 전엽에 18기 이상 조성되는데, 이로 인해 1인 묘제가 줄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고분으로 연평균 인구증가율을 계상할 때 인구의 증감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산지역에 적석목곽묘·석곽묘가 들어오기 前 시기 그리고 석실묘가 도입되는 시기에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급증 현상을 보이는 것은 출산이 아닌 이주에 의한 변화의 양상을 보여 주는 一豫가 된다.

이와 함께 신상리지구에 조성되는 적석목곽묘와 석곽묘를 사용하는 다른 묘제 문화의 전파 또는 다른 문화를 가진 집단의 이주 가능성을 示唆하며, 이로 볼 때 경산지역은 5세기 전반기 전엽부터 신라의 직접적인 영향(통제)에 속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목곽묘를 사용하는 문화와 5세기 전반기 전엽에 도입된 적석목곽묘와 석곽묘 등 3가지 묘제는 경산지역에서 삼국통일 시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6세기 전반기 전엽부터 유행한 것으로 보이는 석실묘보다는 그 숫자가 줄어들지만, 목곽묘의 명맥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분 증감과 연평균 인구증가율 등에 나타나는 수치는 4세기 전반기 후엽에서 4세기 후반기 전엽까지 약 50년 동안 경산지역에서 유일하게 임당유적에서만 감소하는데, 이런 수치는 임당유적에 어떤 變故가 있었음을 明澄하는 증거로 해석된다. 이 변고가 반란인지 전염병 등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유적의 고분 수가 감소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전염병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일성니사금 13년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삼국사기 기록에 대한 수정론이 맞는 것은 아닐까³²⁾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유물을 이용한 삼국시대의 편

32) 이병도 옮김, 앞의 책(2002); 이회준, 앞의 논문(2004), 30~31쪽.; 강종훈, 앞의 책(2001), 28~59쪽.

년을 다시 定立하여야 할 것이다.³³⁾ 또 가천동지구는 4세기 동안, 안심읍지구는 4세기 후반부 후엽부터 5세기 전반기 전엽까지 약 50년간 고분이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4세기 후반부 후엽의 최소 25년, 길게는 4세기 후반부 후엽에서 5세기 전반기 전엽까지 50년 동안은 금호강의 직접 통제가 어려웠던 시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삼국사기의 기록에서 장산군의 主所在地는 임당유적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에 더하여 중방동과 시지유적을 합하여 1개의 권역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즉 임당권역이라고 하여 고총고분이 있는 임당유적이 主都心으로, 시지유적을 副都心으로 보면서 해석하여야 할 것 같다.

삼국시대의 중요했던 임당유적과 시지유적 그리고 가천동지구·안심읍지구·신상리지구 등 5군데는 삼국 통일 이후에도 고분이 계속 축조되는 것으로 보아 정주하였는데 그 규모가 줄어들었으며, 새롭게 하양읍지구와 내리리·인흥리에 고분이 조성되면서 정주하기 시작하면서 통일신라 시기가 되면 경산지역에 定住地가 늘어나고 고려시대가 되면 정주지에 변화가 나타난다.

V. 결론

경산지역의 4세기에서 6세기 전반기까지 25년으로 10개의 시기로 나누어 삼국시대 고분 數를 이용하여 각각의 유적과 지구·지점에 대해 언제부터 정주하였는지 알아보았다.

삼국시대 이전 경산지역에는 임당유적·시지유적·가천동지구·안심읍지구에 고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정주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삼국시

33) 역박연대연구그룹, 앞의 논문(2016), 53~60쪽; Choy, Kyungchel., Yun, Hee Young., Kim, Seung Hee., Jung, Sangsoo., Fuller, Benjamin T., Kim, Dae Wook., 앞의 논문(2021), 11:22551; 최경철·김대욱·정상수, 앞의 논문(2022), 867~868쪽.

대가 되면 임당유적·시지유적 그리고 안심읍지구에만 정주하면서 가천읍지구는 4세기 동안 고분이 없는 빈 공간이 된다. 그러다가 4세기 후반기 후엽부터는 임당유적과 시지유적만 정주하며 안심읍지구도 空地가 된다. 그렇지만 5세기 전반기 전엽부터 가천동지구와 복사리에 고분이 축조되면서 정주가 추가되었고, 5세기 전반기 후엽부터는 신상리지구·안심읍지구 등에 정주를 시작한 후 통일기까지 임당유적·시지유적·가천동지구·안심읍지구·신상리지구에서 정주가 계속된다.

고분 수로 볼 때 4세기 후반기 전엽에 임당유적에 조성된 고분 수가 시지유적의 같은 시기보다 작는데, 고분의 매장(사망)인구집단을 이용한 연평균 인구증가율로 볼 때 같은 양상이 나타난다. 이런 현상은 4세기 전반기 후엽과 후반기 전엽에 임당유적에 어떤 變故가 있었던 것을 알려주는데, 전염병 등의 병리적인 것이 아니라 삼국사기 일성니사금조에 있는 압독의 반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의 내용이 맞다면 삼국사기 초기 기록의 수정론적인 입장에서 해석하는 방법과 유물을 이용한 편년을 再考하는 방법 등으로 시기의 보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고분 수와 연평균 인구증감율의 증감은 경산지역에 삼국 통일을 위한 압독주의 설치·이주와 압독주의 移轉에 따른 변화상으로 판단된다. 이는 경산지역의 인구 증가는 자연적인 출산으로는 급증하는 고분의 축조와 인구 증가율을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즉 경산지역에서 고분의 급증과 이로 인한 정주자들의 증가는 자연증가(출산)로 해결되지 않으며, 이주가 없다면 고분 증가(인구 증가)에 대한 해석이 어렵게 된다. 일정 부분 자연증가가 있지만 대부분은 이주로 고분의 증가와 정주자의 증가로 정주 공간이 부족하여 임당유적과 신상리지구 가까운 곳에 새로운 정주 공간(중방동과 선화리)이 조성된 듯하다. 또 이주하면서 새로운 문화와 기술 등이 유입되어서 경산지역에 묘제의 변화가 나타나는 데, 고분 수가 급증하는 5세기 전반기 전엽에 적석목곽묘와 석곽묘가 들어오며, 5세기 후반부 후엽에 석실묘가 도입된 것이 변화상의 결과물 중 하나이다.

이와 함께 삼국시대 경산지역이 차지하는 기능의 변화에 따라서 고분 수의 변화가 감지되는데, 신라의 삼국 통일을 위한 전초기지가 되기 시작할 때부터 고분 수와 정주자(사람)가 늘어나면서 정주지가 확대되었다. 그러다가 전선의 변화에 따른 전초기지의 이전으로 고분과 정주자의 수에 변화가 오면서 통일신라시대가 되면 임당유적·시지유적·가천동지구·안심읍지구·신상리지구는 고분 수가 줄어든 채 유지되면서 정주지가 유지된다. 이에 더하여 하양읍지구와 내리리·인흥리 등에 새로 고분이 조성되면서 새로이 정주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통일 이후 미개척지에 새롭게 정주하기 시작한 증거 자료이다. 이후 삼국시대부터 통일기까지 있었던 정주지에 새로운 정주지의 개척과 함께 어느 때가 되면 행정·문화의 중심이 지금의 경산시가지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리고 경산지역의 삼국시대 고분 수의 변화로 볼 때 경산지역의 중심지는 임당유적과 시지유적이며, 그 주변에 고분이 조성되었던 곳도 역시 삼국 통일 이후까지 지속되었다. 특히 임당유적과 시지유적은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경산지역에 있었던 삼국시대 장산군의 주 소재지로 한 개의 권역(metropolitan)으로 보아야 하며 임당유적의 興亡盛衰와 같이하던 운명이었다고 판단된다.

※ 이 논문은 2023년 07월 27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08월 31일부터 09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09월 11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1. 논문 및 저서(사료 포함)

- 강봉원, 「인구압력과 전쟁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신라를 중심으로-」, 『신라문화』 21,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3.
- 강봉원, 「인구압력과 전쟁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신라를 중심으로-」, 『한국고고학 일 방향』, 학연문화사, 2008.
- 강중훈, 『신라상고사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 兼若逸之, 「新羅《均田成冊》에서 推定되는 平均壽命」, 『韓國史研究』 30, 한국사연구회, 1980.
- 國立文化財研究所, 『韓國考古學專門事典 古墳篇』, 2009.
- 김대욱, 「임당 고총의 축조와 그 장제」,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김두철, 「金海 禮安里遺蹟의 再檢討-性・年齡을 통한 社會構造 復原 試案-」, 『韓國古代史와 考古學』, 鶴山金廷鶴博士 頌壽 紀念論叢, 2000.
- 金龍星, 「慶山・大邱地域 三國時代 古墳의 階層化와 地域集團」, 『嶺南考古學』 6, 영남고고학회, 1989.
- 김용성, 「土器에 의한 大邱・慶山地域 古代墳墓의 編年」, 『한국고고학보』 35, 한국고고학회, 1996.
- 金龍星, 「大邱・慶山地域 高塚古墳의 研究」,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金龍星, 『新羅의 高塚와 地域集團 -大邱・慶山の 例-』, 춘추각, 1998.
- 김원중 옮김,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2002; 원문 一然, 『三國遺事』.
- 다할편집실 편, 『한국사연표』, 다할미디어, 2002.
- 신석원, 「대구 가천동유적 출토 인골의 재검토」, 『한국상고사학보』 99, 한국상고사학회, 2018.
- 역박연대연구그룹, 「경산 임당동고분군 출토 인골의 탄소 14 연대측정-영남대학교 박물관 조사」, 『한일 고대인골의 분석화학・연대학적 연구와 삼국시대의 실연대』, 2016.
- 영남대학교 박물관, 『영남대학교박물관 소장 경산 임당유적 출토 인골연구자료집』, 2013.

- 이병도 역주, 『삼국사기』상·하, 을유문화사, 2002; 원문 金富軾, 『三國史記』.
- 李熙濬, 『4~5세기 新羅의 考古學的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李熙濬, 「대구 지역 古代 政治體의 성립과 변천」, 『영남고고학』 26, 영남고고학회, 2000.
- 李熙濬, 「경산 지역 고대 정치체의 성립과 변천」, 『영남고고학』 34, 영남고고학회, 2004.
- 이희준 옮김, 『현대 고고학의 이해』, 사회평론. 2006; 원저 Renfrew, C. and Bahn, Paul., *Archaeology: Theories, Methods and Practice*, 2004.
- 이희준, 『신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2007.
- 이희준 옮김, 『고고학의 방법과 실제』, 사회평론, 2013; 원저 Price, T. Douglas, *Principles of Archaeology*, 2007.
- 정상수·방선지, 「경산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묘지로 본 인구의 변화」, 『영남학』 65,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8.
- 정상수·방세현, 「경산지역 청동기시대 마을 유적의 위치로 본 가시권분계와 자원가용권 범위 추론」, 『영남학』 82,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2.
- 정상수·최봉인, 「경산 임당지역과 김해 예안리 고분 출토 인골의 평균 수명」, 『야외고고학』 22, 한국매장문화재협회, 2015.
- 최경철·김대옥·정상수, 「조영동고분군 출토 인골과 동물 뼈의 분석을 통한 고대 경산지역의 계층별 식단 복원」, 『한국고고학보』 125, 한국고고학회, 2022.
- 崔秉鉉, 『新羅古墳研究』, 一志社, 1995.
- 홍보식, 『新羅 後期 古墳文化 研究』, 춘추각, 2003.

Chamberlain, Andrew., *Demography in Archaeology*, Cambridge Manuals in Archae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Choy, Kyungchel., Yun, Hee Young., Kim, Seung Hee., Jung, Sangsoo., Fuller, Benjamin T., Kim, Dae Wook., Isotopic investigation of skeletal remains at the Imdang tombs reveals high consumption of game birds and social stratification in ancient Korea, scientific reports, 2021, 11:22551.

Hassan, Fekri. A., *Demographic Archaeology*, Advances in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v.1., 1978.

<https://namu.wiki>

2. 보고서 (보고서 앞의 번호는 <표 1>과 <도면 1·2>의 유적 번호임)

1) 임당 유적

- 10-계림문화재연구원, 『경산 대동 17-8번지 유적』, 2017
- 11-금오문화재연구원, 『경산 부적리 379번지 유적』, 2015
- 12-삼한문화재연구원, 『경산 임당동 402-20번지 유적』, 2020
- 13-세종문화재연구원, 『慶山 夫迪里古墳群 BVI號墳』, 2019 - 16
- 14-嶺南大學校 博物館, 『慶山 林堂地域 古墳群』 I ~ XVI, 1991 · 1994 · 1998
· 1999 · 2000 · 2002 · 2003 · 2005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9 · 2021
- 15-嶺南文化財研究院, 『慶山 林堂洞遺蹟』 I, 1999
- 15-嶺南文化財研究院, 『慶山 林堂洞遺蹟』 II ~ IV, 2001
- 16-진흥문화재연구원, 『경산 대동 57-1번지 유적』, 2015
- 17-진흥문화재연구원, 『경산 대동 57-34번지 유적』, 2015
- 18-한국문화재보호재단, 『慶山 林堂遺蹟』 I ~ VI, 1998
- 19-한빛문화재연구원, 『경산 임당 1호분』, 2020

2) 시지 유적

- 30-慶南文化財研究院, 『대구 옥수동 사월지구 도시계획관리부지 내 대구 옥수
동 유적』上 · 下, 2022
- 31-세종문화재연구원, 『慶山 玉山洞 677-7番地 遺蹟』, 2020
- 32-嶺南大學校 博物館, 『時至의 文化遺蹟』 I ~ VIII, 1999
- 33-嶺南大學校 博物館, 『大邱 旭水洞 古墳群』, 2002
- 34-嶺南文化財研究院, 『大邱 時至地區 古墳群』 I, 2001
- 35-嶺南文化財研究院, 『大邱 旭水洞388番地 遺蹟』, 2003
- 36-嶺南文化財研究院, 『大邱 旭水洞 · 慶山 玉山洞 遺蹟』 I, 2003
- 37-嶺南文化財研究院, 『大邱 時至洞60-1番地遺蹟』, 2004
- 38-嶺南文化財研究院, 『大邱 盧邊洞古墳群 I』-木槨墓-, 2005
- 39-嶺南文化財研究院, 『大邱 旭水洞 364-3番地遺蹟』, 2006

- 36-嶺南文化財研究院, 『大邱 旭水洞·慶山 玉山洞 遺蹟Ⅱ』-土器窯址-, 2011
- 36-嶺南文化財研究院, 『大邱 旭水洞·慶山 玉山洞 遺蹟Ⅲ』-墳墓Ⅰ-, 2011
- 36-嶺南文化財研究院, 『大邱 旭水洞·慶山 玉山洞 遺蹟Ⅲ』-墳墓Ⅱ-, 2011
- 40-嶺南文化財研究院, 『大邱 三德洞遺蹟』, 2012
- 34-嶺南文化財研究院, 『大邱 時至地區 古墳群Ⅱ』(1)~(4), 2013
- 38-嶺南文化財研究院, 『大邱 盧邊洞古墳群Ⅱ』(1)~(12), 2015
- 41-嶺南文化財研究院, 『慶山 中山洞遺蹟』(1)~(7), 2019

3) 가천동 지구

- 50-嶺南文化財研究院, 『大邱 佳川古墳群Ⅰ』, 2002
- 51-嶺南文化財研究院, 『大邱 佳川洞 遺蹟』, 2004
- 50-嶺南文化財研究院, 『大邱 佳川古墳群Ⅱ』, 2012
- 50-嶺南文化財研究院, 『大邱 佳川古墳群Ⅲ』, 2013
- 52-聖林文化財研究院, 『大邱 佳川洞 新羅墓群』, 2011

4) 안심읍 지구

- 60-다온문화재연구원, 『대구 괴전동 90-1번지 유적』, 2019
- 61-동국문화재연구원, 『대구 괴전동 178-2번지 유적』Ⅰ·Ⅱ, 2022
- 62-嶺南大學校 博物館, 『大邱 傀田洞 遺蹟』, 2004
- 63-嶺南文化財研究院, 『大邱 東內洞遺蹟』, 2002
- 64-嶺南文化財研究院, 『大邱 角山洞912-6番地遺蹟』, 2008

5) 하양읍 지구

- 70-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경산 대학리 51-1번지 유적』, 2018
- 71-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경산 대학리 74번지·교리 155번지 유적』, 2018
- 72-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경산 한사리·대학리 25번지 유적』, 2018
- 73-대경문화재연구원, 『경산 남하리 471-1번지 유적』, 2020
- 74-동북아문화재연구원, 『경산 대학리·교리 유적』, 2019
- 75-성림문화재연구원, 『慶山 陽地里 遺蹟』, 2020

6) 신상리 지구

- 80-경북문화재단 문화재연구원, 『경산 평사리 550-3 유적』, 2021
- 81-嶺南大學校博物館, 『慶山 新上里 遺蹟』Ⅰ~Ⅴ, 2006
- 82-한빛문화재연구원, 『慶山 新上里 995-3番地 遺蹟』, 2010
- 83-한빛문화재연구원, 『慶山 大院里·新提里·廣石里 遺蹟』, 2011

7) 기타 유적

- 90-삼한문화재연구원, 『慶山 平基里 遺蹟』, 2015
- 91-영남대학교 박물관, 『慶山 北四里 古墳群』, 1991
- 92-한국문화재보호재단, 『慶山 內里里 遺蹟』, 2010
- 93-한국문화재재단, 『경산 선화리 1111번지 유적』, 2014
- 94-한빛문화재연구원, 『慶山 仁興里 遺蹟』, 2013
- 95-한빛문화재연구원, 『경산 중방동 682-10번지 유적』, 2018
- 96-홍익문화재연구원, 『경산 갈지리 산16-1번지 외 2필지 유적』, 2018

- ※ 2022년 발행 보고서 중 연구자가 구할 수 있는 유적에 대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경산 임당동 578번지, 경산 조영동 228-3번지는 시굴조사만 이루어진 유적, 경산 신대부적 조선묘, 경산 중방동유적-C구역-은 삼국시대 유적이 아니어서 연구대상 유적에서 제외하였다.
- ※ 유적번호가 중복되는 경우는 1개 유적으로 발굴조사 허가를 받은 후 보고서가 2차례 이상 나뉘어서 발간되었기에 같은 유적번호를 부여하였다.

Abstract

A Study on the Domicile and the Change Aspect Using
the Tombs at the Three Kingdom Period in
Kyeongsan(慶山) Area

Jung, Sang-soo

This paper make out from when to when the peoples lived using the number of tomb and the increase and decrease at three kingdom period in *Kyeongsan* area. And it sum up the peoples of the estimation of the annual rate of population growth according to the variation in the number of tomb, also look for changes in shape of the tomb by at this time of three kingdom period in *Kyeongsan* area. As a result stone compiled wooden chamber tomb · stone lined tomb at 5 century and stone chamber tomb at 6 century introduced and built, at that time increased the number of tomb and the estimation of the annual rate of population growth.

The number of tomb at the middle and the latter of 4 century, *Yimdang*(林堂) site decreased but continuously increased the number of tomb at *Siji*(時至) site. After 5 century the number of tomb increased in same pattern at *Yimdang* site, *Siji* site and other sites in *Kyeongsan* area. The number of tomb increased time, also grew the estimation of the annual rate of population growth and at that time each of stone compiled wooden chamber tomb · stone lined tomb and stone chamber tomb was introduced and built, it was one of the transition. A decrease in the number of tomb *Yimdang* site at 4 century is not the result of a infectious disease, maybe it is related to the rebellion by the

historical record(*Samkuk sagi*; 三國史記). If it was to rebellion, it is possible to interpreted from revisionism of the early record of *Samkuk sagi*. If it is not related to the record(*Samkuk sagi*) we need to reconsider the determination of the timing we used an earthenwares. After the three kingdom period in *Gyeongsan* area, the location of *JangsanGun*(獐山郡) was judged to be *Yimdang* and *Siji* site, this two site did in one metropolitan area.

keywords :

Kyeongsan(慶山) area, the tomb of Three Kingdom period, the Domicile, a Change Aspect, the Modulation Corollary of a Population

